

문화광장



김연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민간 예술 공간의 지속성

국공립 미술관과 공연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설립과 운영에 큰 예산이 드는 탓에 그 수를 무작정 늘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국공립 미술관과 공연장이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공립 미술관과 공연장만 생긴다면 실질적인 예술은 성장하기 힘들다. 또한 동시대 예술 중에는 기존 미술관과 공연장의 규모나 형태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다양한 예술 형식과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전시장과 공연장이

필요하다. 즉 국공립 미술관과 공연장보다 훨씬 유연하게 예술가와 소통하고 예술가의 요구를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예술 공간이 필요하다. 민간 예술 공간의 중요성은 시각예술에서의 사례만 살펴보다도 쉽게 알 수 있다. 1999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대안공간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표적 비영리 예술 공간이다. 대안공간은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키워냄으로써 최근 20년간 한국 동시대 미술을 이끌었다. 예를 들어 2015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받은 임흥순,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받은 믹스라이스 등이 바로 대안공간 출신의 작가다. 이렇듯 민간 예술 공간의 중요성은 크지만, 지속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상당수의 민간 예술 공간이 경제적인 이유로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

다. 따라서 민간 예술 공간의 지속성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이 현재 민간 예술 공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조금 사용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조금으로 예술 활동을 위해 계속 사용해야 하는 장비라 할지라도 살 수 없고, 공간 운영에 꼭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도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보조금이 공간 유지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보조금 지원 범위를 공간의 성격에 맞게 확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예술 공간들이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똑같은 심사기준, 지원기간, 지원방향을 모든 예술 공간에 적용하기 때문에 예술 공간의 성격을 획일화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는다. 예술 공간마다 자신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

원방법을 바꿔야 한다. 민간 예술 공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비재정적 지원방법도 연구돼야 한다. 비재정적 지원으로는 민간 예술 공간을 위한 후원 캠페인 같은 것이 가능하다. 일반인들이 후원에 관심을 두도록 여러 매체를 이용해 홍보하고, 후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쉽게 후원할 수 있도록 민간 예술 공간을 소개하는 책자나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을 지원할 수 있다. 민간 예술 공간에 후원할 경우 세제 혜택이 커지도록 법을 바꾸는 일도 민간 예술 공간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예술 공간 매입을 위해 원금상환 기간이 긴 융자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타당성을 논의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민간 예술 공간을 지원한다면, 현재의 예술 공간들의 활동을 앞으로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다.

열린마당

환경교육은 선택 아닌 필수



고기봉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기통에 버리면 그만이고, 매일 아침 커피 한잔을 위해 텀블러를 설거지하는 노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되니 내 손을 떠난 일회용품의 향방은 내 손을 떠남과 동시에 생각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따라서 환경을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2세대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급하다. 현재 자연환경은 후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므로 현재도 미래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환경정책이 결정돼야 하고 예산 사용도 선수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환경교육의 최종 목표인 3R만 기억하면 된다. 즉 발생억제(Reduce), 재활용(Reuse), 재생이용(Recycle)의 3R 정책을 시민, 사업자,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 실천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기통에 버리면 그만이고, 매일 아침 커피 한잔을 위해 텀블러를 설거지하는 노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되니 내 손을 떠난 일회용품의 향방은 내 손을 떠남과 동시에 생각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따라서 환경을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2세대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급하다. 현재 자연환경은 후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므로 현재도 미래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환경정책이 결정돼야 하고 예산 사용도 선수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환경교육의 최종 목표인 3R만 기억하면 된다. 즉 발생억제(Reduce), 재활용(Reuse), 재생이용(Recycle)의 3R 정책을 시민, 사업자,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 실천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지사, 국회서 4·3특별법개정안 처리 요청

기간내 처리 여전히 불투명 ○...원회록 도지사가 30일 국회를 찾아 제4·3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최근의 정국을 감안하면 낙담하지 않을 전망이다. 원 지사는 이날 송승문 4·3유족회장 및 양조훈 평화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체의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윤재욱·홍문표 위원을 만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적극 지원을 당부. 이에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여야합의가 원천이며, 심사과정에서 잘 듣고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으나 기한내 처리는 불투명. 조상윤기자

주민복지와 직원들 나눔실천

○...제주시 주민복지와 직원들이 점심값으로 모은 성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귀감. 직원들은 지난 4·5월에 이어 지난달 27일에도 직접 싸운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직원간 소통의 시

간을 가졌고 오는 10·11월 중에도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아낀 점심비용은 사회복지시설 물품기탁, 연말연시 이웃돕기 등에 쓸 예정. 강창훈 과장은 "양은도시락 시책은 지난 2007년부터 10여년간 이어온 시책"이라며 "청렴분위기 확산과 나눔실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 고대로그자

농협 직원, 금융사기 방지

○...농협서귀포시지부 소속 직원들이 지난 1월 전기통신 대출사기 방지에 이어 최근 1000여만원의 금융사기를 막아 화제. 화제의 주인공은 이진숙 계장으로 지난달 26일 공인인증서와 OTP카드 발급을 급하게 요구하는 고객을 보고 금융사기임을 직감, 고객을 진정시키며 경찰서 방문을 유도하는 등 기지를 발휘. 고석찬 지부장은 "평소 지속 실시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교육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켰다"며 "앞으로도 예방교육에 철저히 기하겠다"고 강조. 백규탁기자

사설

서귀포지역 주택경기 얼어붙어 걱정된다

서귀포지역 주택경기가 갈수록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데다 악성 물량도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서귀포시 지역이 사상 처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 됐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수는 제주도 479호, 서귀포시 744호 등 1223호로 집계됐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제주도보다 2개월 연속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제주시는 500호 이하로 줄어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서귀포시는 645호였던 미분양이 7월에 비해 99호가 증가하면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개발 계약을 받습니다. 문제는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단순히 미분양 물량만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도내 준공후 미분양 736호 가운데 서귀포시가 제주시를 앞질렀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은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전체 750호 중 225호에 지나지 않았습니. 그제 지난 5월에는 서귀포시(405호)가 처음으로 제주도(325호)를 추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지역 주택경기가 바짝 얼어붙고 있어 걱정입니다. 침체의 원인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한동안 뜨거웠던 이주열풍이 가라앉으면서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인구유입 증가세가 꺾이면 서귀포에 따른 수요 부족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월에 비해 99호가 증가하면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개발 계약을 받습니다. 문제는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단순히 미분양 물량만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도 눈덩이처럼

스쿨존 안전운전 의식·보행환경 개선 절실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은 통학하는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문 기준 반경 300m 이내를 주요 통학로로 지정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는 등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스쿨존은 여전히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제주도내 스쿨존에서 만 13세 이하 교통 인명사고가 모두 16건 발생했습니다. 이중 2건만이 주말인 토요일에, 나머지 14건은 모두 평일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쿨존 구역에서 안전속도 무시와 불법 주정차 사례는 여전히 현실입니다. 본보가 지난 29일 JDC와 함께 개최한 청소년 캠프에서도 스쿨존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어린이

들의 걱정과 관심이 높았습니다. 스쿨존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으로는 '과속 등 운전자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등이 꼽혔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안전시설 추가 설치,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호소입니다. 안전운전 의무만 제대로 지켜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6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만1264건에 대해 운전자 법규위반 유형을 분류한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6174건(5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안전운전 의식 향상 등 안전한 스쿨존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스쿨존에서의 단속을 우선적으로 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청소년 캠프에서도 스쿨존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어린이

부고 박진호(하늘출판인쇄 대표) 어머니 광산김씨 홍자(향년 79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30일 08시에 별세 하셨습니다. ▶ 일 포: 2019년 10월 1일(화) ▶ 발인일시: 2019년 10월 2일(수) 오전 6시 30분 ▶ 발인장소: 함덕제주장례식장 1분향실 ▶ 장 차: 대흘 가족공동묘지 남 편 박경시 아 들 박진호 며느리 이혜숙 진원 강주영 진철 김효순 진일 고매화 ※ 연락처: 박진호 010-6690-3436

제주지방방법원 관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7 강제추행 피 고 인 하 의 석 위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9. 30 판사 서근찬

제주지방방법원 관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6고정605 의료법위반 피 고 인 서 명 수 위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9. 30 판사 서근찬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곡식품의약품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제주도 함림읍 명성로106-7)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도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 혜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아래조생 3년생 땡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